

# 무안 해제남초, '꿈나무 심기 행사'

### 벚꽃비와 함께 전교생이 동참하는 식목 행사 진행 꿈 과일나무 심기 통해, 내 삶 가꾸는 교육환경 조성



무안 해제남초등학교는 벚꽃비와 함께 전교생이 동참하는 식목행사로 지난 4일 꿈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사전에 자신이 심고 싶은 다양한 과일나무를 선정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나무 친구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꿈과 연계한 나무 표찰을 작성 후, 직접 나무를 심고 여러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발표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한 해제남초등학교(교장 정일영)는 식목일을 맞이하여 "생태전환 학교로서 학생들의 꿈을 함께 모아 꿈나무를 심고, 학생들이 직접 키우고 관찰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오를 이 행사에 참여한 해제남초등학교 학생회장인 6학년 김윤재 학생은 "학생들과 다함께 과일나무를 심어보고 나중에 키워서 직접 먹을 수 있다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며 졸업 후에도 학교를 방문해 꿈나무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또한 서울에서 농산어촌유학을 온 유학생 6학년 유지한 학생은 "나만의 과일나무가 생겨서 뿌듯하다. 2학기에 서울로 다시 갈 예정이지만 커가는 사인 머스켓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학교를 방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꿈나무 심기 행사를 통해 환경교육 내실화로 환경의식 고취 및 저탄소 녹색 성장의식 함양 자연환경의 소중함 및 애교심 갖기 등의 기회가 되었다.

무안=이기성기자

## 장성교육청, 장성영재교육원 개강식 개최



장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지난 4일 장성영재교육원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발시험을 거쳐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61명의 영재교육대상 학생들은 '장성의 내일을 준비하는 장성영재'를 슬로건으로 애항심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장성교육지원청에서는 융합형 영재 육성을 위한 주제통합 영재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관내 교사 30여명이 참여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요리, 건축, 우주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제들과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반으로한 미래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성영재교육원에서는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변호사, 역사학자, 생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인문학 특강을 운영하고, 텍사스 주립대 조은지 교수와의 원격 영어작문 수업을 운영한다.

장성영재교육원 오지우 학생은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과학, SW활동이 가장 기대가 되고 다른 학교의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며, 영재교육원 수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장성교육지원 이재양 교육장은 학생들에게 "공부와 성적에 얽매기 보다는 행복하고 즐거운 영재원 생활을 할 것을 당부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기를 맞아 다양한 체험학습 및 탐구체험 중심 학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수권기자



## 목포 문태중, "학생과 함께하는 사제동행" 친선 농구경기 열어

### 스승과 제자가 서로 소통하며 활기 넘치는 학교 분위기 형성

목포문태중학교 농구 동아리 선생님들과 3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사제동행 농구경기'를 했다.

점심을 먹고 12시부터 심판으로 나온 이호진 교감은 교사와 참가 학생들에게 준비운동과 안전수칙에 대해 안내한 후 경기를 진행하였다. 교사 5명과 학생 5명으로 시작하며 초반에는 막상막하의 경기를 보였다. 선생님팀이 블로킹과 2점슛으로 연달아 점수를 얻으며, 점

수차가 났지만 후반전에는 교사들의 체력이 떨어져 학생팀이 막판 추격에 나섰다. 이에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열띤 응원을 펼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학생팀은 초반 점수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사 팀의 승리로 끝났다.

이 번 사제동행 농구경기는 스승과 제자 간의 친밀도를 높여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보성 벌교초,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캠페인

###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는 화단 꽃 심기

보성 벌교초등학교는 지난 3일 학부모회 주관으로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봄이 되었지만 삭막하기만 한 화단을 꽃이 예쁘게 자라는 공간으로 꾸며보는 벌교초 교육 가족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학부모회의 노력으로 '벌교 청년 한마음회'에서 꽃단지 66 제곱미터를 지원받았다. 1주일 전 화단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학부모와 5-6학년 학생 120명이 정문 진입로와 후문 입구에 꽃을 심었다.

평소에 화분 분갈이 한번 안 해본 교사와 학생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서툰 솜씨나마 직접 심어봄으로써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학교'라는 주인의식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곳을 지날 때마다 자신이 심은 꽃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관심과 애정을 듬뿍 주리라 믿는다.

이날 행사는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한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환경 교육 및 생태체험 활동도 겸했던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100

년 넘은 역사를 가진 벌교초등학교는 보성여관, 금용조합과 월곡 벽화 마을로 이어지는 태백산맥 문화 거리에 위치해 많은 관광객이 지나다닌다. 꽃 심기 행사가 학교를 찾는 학생과 지역민은 물론 학교 앞을 지나는 사람에게까지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6학년 학생은 "처음으로 꽃모종을 옮겨 봤는데 줄기가 꺾일까 봐 조심스러웠어요. 꽃이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이윤화 학부모회장도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지역공동체가 함께 하는 꽃 심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인옥 교장은 "벌교초등학교를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학교로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친구를 사랑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학교 앞을 지나는 관광객에게도 찾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 전남교육청, 초기문해력 교육 교원연수 실시

전라남도교육청이 기초학력전담교사와 초등 저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역량 강화 읽기따라잡기 연수'를 실시한다.

한글 책임교육 실현과 초기문해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매주 화요일

3시간씩 실행 연수 형식으로 오는 7월까지 화순 하나옴문화스포츠센터에서 총 45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연수 과정은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초기문해

력 검사 및 실제성에 기반한 읽기, 쓰기 활동을 실행 연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상 수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읽기 곤란 학생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 교육복지 차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